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파리를 2020년까지 자전거 도시로 만든다	파리
산업·경제	3	법인세 감면·특구 지정 등으로 국제금융도시 위상 회복	도쿄
사회·복지	5	파리 매드, '빈곤층 치료' 제1부문 의사 개업 지원	파리
행정·교육	7	운동하는 어린이에 연간 최대 10만 원 보조	뉴사우스웨일즈
도시계획·주택	9	공공기관 소유 공유지 활용해 부담가능주택 공급	런던
환경·안전	11	'시민참여로 유럽최대 녹지공원 조성' 환경 프로젝트	토스카나
	13	모든 주거 타워블록에 스프링클러 설치	버밍엄
뉴스인사이드	15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파리를 2020년까지 자전거 도시로 만든다

벨로플랜…자전거도로 2배로 늘리고 전용주차장 1만 곳 증설

프랑스 파리市 / 도시교통

- 프랑스 파리市는 파리를 2020년까지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벨로플랜’(plan Velo)을 올해부터 본격 실행 중이며, 총 1억 5천만 유로(2천억 원)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2배 연장과 전용주차장 1만 곳 이상 증설 등을 추진
- ‘벨로플랜’의 배경
 - 시내 어디든 도보나 자전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특성상 자전거 이용을 권장
 - 파리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1/6에 불과하여 버스나 지하철이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아님
 - 이에 따라 파리시는 예전부터 자전거 이용을 권장했으며, 공유 자전거 제도인 ‘벨리브’(Velib) 활성화로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 구축 중
 - ‘벨리브’는 파리시민이 적은 금액으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편리한 이용이 가능
 - 시의회는 2020년까지 파리를 자전거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인 ‘벨로플랜’을 2015년 통과시켰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
- ‘벨로플랜’의 기본 목표
 - 주요 목표는 파리를 2015년보다 더욱 좋은 자전거 도시로 만드는 것
 - 파리 기후협약과 발맞추어 ‘자연환경보호’를 목표에 추가
- 주요 내용
 - 구체적 목표: 파리 교통에서 자전거 이동의 비율을 5%에서 15%로 3배 늘리기
 - 1억 5천만 유로(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시설을 확충
 - 자전거도로 정비와 신설, 전용주차장 1만 곳 이상 증설,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새로운 개념의 자전거 전용 네트워크 건설 등에 사용

- ‘벨로 익스프레스 네트워크’(reseau express velo)
 - 자동차도로 옆에 추가되는 형태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달리 오직 자전거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로 네트워크
 - 기존 도로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양방향 자전거도로이며, 80km 정도를 건설할 예정
-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교통법규를 만들 계획
- 안전한 자전거 보관소 ‘벨리고’(Veligo)를 주요 지하철역 등에 설치할 예정
 - 시민들이 절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하철공사(RATP)와 철도청(SNCF)과 협의하여, 지하철 환승역·큰 기차역·지상 경전철역 등에 설치
 - 이에 더해, 주차장과 공유지 등에도 현재보다 작은 크기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총 1만 곳 이상을 증설할 예정

<https://www.paris.fr/actualites/paris-se-dote-d-un-nouveau-plan-velo-2255>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산업·경제

법인세 감면·특구 지정 등으로 국제금융도시 위상 회복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 일본 도쿄都는 국제금융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금융기업의 법인세 감면, 외국인을 위한 특구 지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투자 장려 등을 포함한 주요 시책을 2017년 6월 발표
- 배경
 -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홍콩과 싱가포르의 발전 등으로 도쿄가 아시아에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
 - 런던, 뉴욕과 함께 국제금융도시로 인정받았던 도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증가
 - ‘국제금융도시·도쿄를 위한 간담회’ 창설
 - 도쿄도지사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
 - 2016년 11월부터 금융의 활성화 방안과 해외 금융계 기업의 일본 진출 방해요소의 해결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
 - 도쿄가 아시아 최고의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도쿄도·정부·민간 사업자의 협력 방안을 구축
- 주요 시책
 - 비즈니스 및 생활 환경을 매력적으로 정비
 - 국내외 금융계 기업, 특히 자산 운용업 및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의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 및 법인세의 경감을 검토
 - 금융계 행정 절차의 상담 체제 정비 및 영어 대응을 강화
 - 라이선스 등록 절차에 관한 영문 해설서를 제작하고,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에서 영어로 개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외국계 고도 금융인력을 위한 특구를 지정해 직장 인근에 의료·교육 시설 등이 갖춰진 마을을 조성
- 도쿄 시장에 참여하는 국제 플레이어의 육성
 - 2020년까지 자산 운용 및 핀테크 등 금융 관련 외국계 기업 40개사를 유치할 목표
 - 대상 기업에 시장 조사 및 사업 계획에 관한 무상 컨설팅, 전문가 상담, 인재 채용 경비 보조 등의 정책을 시행
 - 국내외의 신흥 자산 운용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국 연금기금 등에서 시행 중인 ‘신흥 자산 운용업자 육성 프로그램’(Emerging Manager Program)의 도입을 검토
 - 자산 운용업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칭 기회 창출
 - 수도대학 도쿄대학원 비즈니스 스쿨의 고도 금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재검토
 - 금융청과 연계하여 청년과 일반 시민용 금융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금융의 공헌
 - 금융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투자를 도쿄 시장에 적극 수용
 - ESG투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투자를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기업의 공헌을 강조함.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
 - 2017년에 총 200억 엔(2,034억 원) 규모의 ‘도쿄 그린 펀드’를 발행하고 촉진 대책을 검토
 - 도쿄 금융상(가칭)을 제정하여 ESG투자를 활성화하는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를 표창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7/06/09/01.html>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사회·복지

파리 매드, ‘빈곤층 치료’ 제1부문 의사 개업 지원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제1부문 의사의 수가 감소해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평등권이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매드’(Paris Med)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제1부문 의사의 개업을 지원
- ‘파리 매드’의 설립 배경
 - 빈곤층·차상위층을 위한 제1부문 의사가 감소 중
 - 프랑스 의료 시스템은 의사를 제1~3부문에 나누며, 제1부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음
 - 제2부문은 70%를 환급받고, 제3부문은 거의 환급받지 못함
 - 파리에서 제1부문 의사의 수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가난한 지역에서 제1부문 의사가 철수하는 경향이 심화
 - 오랜 교육기간을 거친 젊은 의사들이 금전적 문제로 개업을 못하는 사례 증가
 - ‘파리 매드’는 제1부문 의사의 개업을 지원해 빈곤층의 건강평등권과 젊은 의사의 개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
- 두 병원의 예로 살펴본 ‘파리 매드’의 세부사항
 - 20구 폰타라비(Fontarabie)가(街) 병원
 - 가난한 지역인 20구 폰타라비가에 ‘파리 매드’의 지원을 받은 최초의 병원이 개업
 - 일반의 2명, 산파 2명(프랑스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만큼 산파의 역할이 중요함), 간호사 2명, 발음교정사 1명으로 구성된 병원
 - 시에서 6만 유로(7,800만 원)의 보조금과 개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함께 지원
 - 대신 이 의사들은 최소 3년간 제1부문의 의사로 일하면서 지역의 공공보건을 위해 힘써야 함

- 첫 번째 병원의 개업 이후, 개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8명의 의료인 (의사, 간호사, 산파 등)이 ‘파리 매드’와 개업을 위한 협의를 시작
- 2017년 말까지 10명 이상의 의사가 ‘파리 매드’의 지원을 받아 개업할 예정
- 11구 모랑(Morand)가 병원
 - 일반의 3명과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운영하던 병원이었지만, 의사 2명의 은퇴로 경영 상태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
 - ‘파리 매드’는 개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이 병원에 들어와 일을 하며 경험을 쌓기를 기대
 - ‘파리 매드’의 지원으로 기존 병원 근처에 일반의 4명, 산부인과 의사 1명, 산파 1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병원을 개원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파리 매드’는 젊은 의사의 개업과 빈곤층·차상위층의 건강평등권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음

<http://www.paris.fr/actualites/paris-med-aide-les-professionnels-de-sante-a-s-installer-4091>

<http://www.sante-repere.fr/guide-mutuelle/lexique-mutuelle/medecins-de-secteur-12-et-3/>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행재정·교육

운동하는 어린이에 연간 최대 10만 원 보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행재정·교육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아동비만 감소 정책의 하나로 ‘활동적인 어린이 보상’(Active Kids Rebat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린이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호주달러(10만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보조
- 배경
 -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 주정부
 - 뉴사우스웨일즈주 5~16세 아동의 22%가 건강체중(healthy weight) 범위를 초과(2015년 기준)
 -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아동은 29%에 불과하며, TV·컴퓨터·게임 등 비활동적인 행위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아동이 44%
 - 주정부는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대중캠페인, 전문가를 이용한 비만 프로그램 소개, 식품 포장지에 열량표기 의무화, 도시·건물 설계에 건강 가이드라인 적용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활동적인 어린이 보상’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신체적 활동성을 강화·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7~2018년 예산 편성의 주요 정책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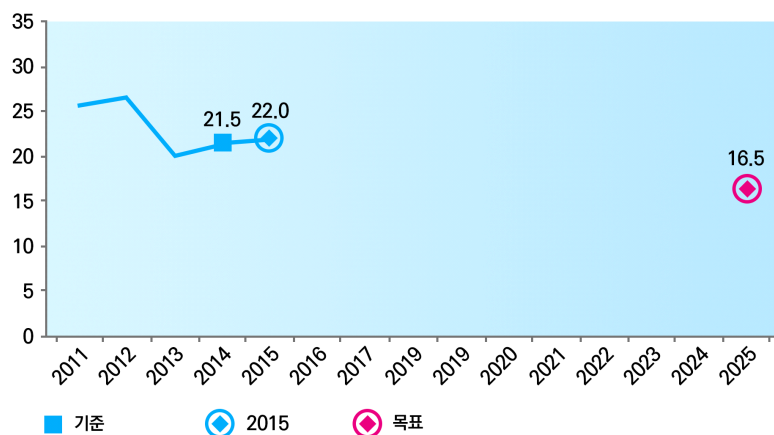


그림. 뉴사우스웨일즈주 아동 비만을 및 목표

- 주요 내용

- 학부모에게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가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유치원생부터 12학년(고3)까지의 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학생 1인당 매년 최대 100호주달러(10만 원)의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방과후 혹은 주말 스포츠 활동 참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
- 넷볼(netball, 호주식 농구)·축구·야구·수영·체조·헬스클럽·육상 등 스포츠 활동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으나, 등록된 단체나 기관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모든 어린이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제공
 - 학부모가 주정부 스포츠청(Office of Sports)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바우처를 신청한 뒤 자녀의 스포츠 활동 가입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
 - 가족당 어린이 수에 제한이 없고 수입 및 자산조사(means-test)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으로 등록된 어린이는 누구나 균등한 혜택을 받음
 - 지원금은 어린이 한 명당 1년에 1회, 최대 4회 받을 수 있음

- 향후 진행

- 이 프로그램은 2017~2018년 회계연도부터 4년간 시행될 예정
- 주정부는 2억 700만 호주달러(2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
- 2018년 1월부터 실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2017년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가짐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new-rebate-for-families-with-active-kids/>

<https://sport.nsw.gov.au/sectordevelopment/activekids>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도시계획·주택

공공기관 소유 공유지 활용해 부담가능주택 공급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市는 2020년까지 런던시민에게 ‘정말로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런던 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가 소유한 2,300만 m² 규모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부담가능주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

- 배경

- 런던시 내 중요지점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교통공사
 - 런던 전체 토지의 1/4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런던 교통공사는 그 중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기관의 하나
 - 교통공사 소유 공유지 대부분은 런던 중심가이자 교통의 요지에 몰려 있음
- 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개발에는 문제점도 존재
 - 지가가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재원 마련 문제
 - 전문적인 개발사가 아닌 교통공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문제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확고한 의지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 중
 - 칸 시장은 주택문제를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공유지에 건설하는 부담가능주택은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택문제 해결의 앵커(anchor)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교통공사 소유의 20여 개 사이트에서 개발사업 진행 중

- 칸 시장의 문제 해결 전략

- 교통공사에 주택개발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가 육성·영입을 추진
 -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와 교통공사가 다양한 형태의 공유지에 중·소형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법을 습득하기를 기대

- 교통공사·시·자치구·개별협력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 단기간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규모 건설업체와 협력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
- 5가지 가이드라인과 8가지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소유 공유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택 개발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시장은 자치구와 교통공사 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교통공사도 자치구·개발업체 등과 최대한 협력하고 갈등을 최소화
 - 교통공사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택개발 분야 전문가를 영입
 -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과 실행 방안을 고려
 - 교통공사 소유 공유지에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7년 말까지 2~3건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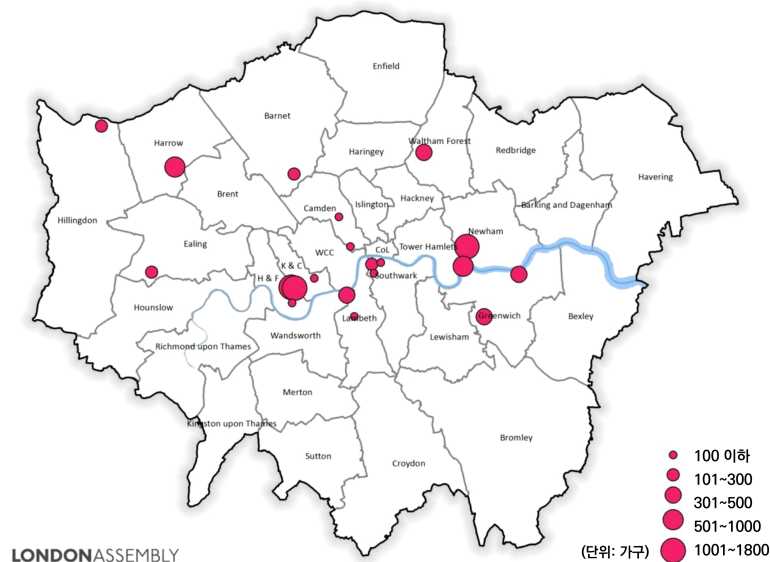


그림. 런던 교통공사 소유 공유지 내 주거 재개발 대상 지역과 공급 규모

<https://www.london.gov.uk/about-us/london-assembly/london-assembly-publications/homes-down-track-marathon-and-sprint-tf>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ousing_committee_-_homes_down_the_track_report.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환경·안전

‘시민참여로 유럽최대 녹지공원 조성’ 환경 프로젝트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환경·안전

-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관리가 덜 된 녹지를 시민참여로 탈바꿈시켜 유럽최대의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7월 초부터 시행
- 배경 및 개요
 - 토스카나주에는 대규모 공원·산림 등의 잠재적 환경 자원이 많지만 문화예술 유산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실정
 -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며 녹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
 - 토스카나주가 2014년 시작한 ‘농촌 발전 프로그램 2014~2020’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공식 명칭은 ‘Facciamo Insieme Il Bosco: Ci mette gli Alberi’ (함께 산림을 가꾸자: 나무를 심자)
- 주요 내용
 - 토스카나 주민 누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녹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 총 150헥타르(1.5㎢)의 대지에 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오염·기후변화 등 일상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한 녹색 폐’(Polmone verde: Green Lung)를 모토로 내세워, 시민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도록 유도
 -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50kg, 30년간 1.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환경적 효과를 강조
 - 이탈리아 산림과학 아카데미(Italian Academy of Forest Science)의 자문과 협조를 받는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프로젝트임을 강조

- 토스카나주 모든 도시의 주요 공원과 산림이 대상이며 면적, 접근성, 환경적·문화적 중요도를 고려하며 1~2그룹으로 분류
 - 1그룹 주요 도시: 피렌체(Firenze), 피사(Pisa), 루카(Lucca) 등의 대도시
 - 2그룹 주요 도시: 엠폴리(Empoli), 피스토이아(Pistoia)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덜 알려진 도시
- 토스카나주의 펀드 1,400만 유로(182억 원)를 투자
 -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펀드(FEASR: Fondo Europea Agricolo per lo Sviluppo Rurale)의 투자를 받음
 - 자연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의 적합한 대응이라는 평가로 유럽연합이 적극 지지
-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운동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는 공공 자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개인 혹은 기업 녹지까지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힐 계획

<http://www.regione.toscana.it/-/parco-della-piana>

<http://www.perunaltracitta.org/2017/06/26/gli-alberi-spot-della-regione-toscana-bosco-della-piana/>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모든 주거 타워블록에 스프링클러 설치

영국 버밍엄시 / 환경·안전

- 영국 버밍엄시는 최근 시내 주거 타워블록 231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주거 타워블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외 필요한 화재 대책을 갖추기로 결정
- 배경
 -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런던 그렌펠타워(Grenfell Tower) 화재에 따른 소방·방재 실태조사 시행
 - 버밍엄 시의회 의장 존 클랜시(John Clancy)는 시급히 시내 213개의 주거 타워블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 조사결과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 노후 주거 타워블록의 소방·방재 설비가 열악한 상황임을 발표
- 주요 내용
 - 주거 타워블록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조치
 - 모든 주거 타워블록 내 공용 쓰레기 취합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건물 내에 화재 진압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
 - 시의회는 3,100만 파운드(460억 원)의 예산을 마련
 - 주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방·방재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
 - 버밍엄 외 9개 주요 도시의 연합인 ‘코어 시티 그룹’(Core City Group)은 영국의 대규모 시의회 연합회로, 각 지방정부의 소방·방재시설 확충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
 - ‘코어 시티 그룹’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려울 때는 시의회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여 기금을 마련할 계획도 검토 중
 - ‘코어 시티 그룹’ 소속 도시: 버밍엄(Birmingham), 브리스톨(Bristol), 카디프(Cardiff), 글래스고(Glasgow), 리즈(Leeds), 리버풀(Liverpool), 맨체스터(Manchester), 뉴캐슬(Newcastle), 노팅엄(Nottingham), 셰필드(Sheffield)

- 존 클랜시 의장은 그렌펠타워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소방·방재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 출연에 반드시 동의해 줄 것을 강조
 - 또한 “도시 규모의 소방·방재 프로그램이 수행된다면 이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89/council_to_fit_sprinklers_in_tower_blocks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82/birmingham_tower_blocks_statement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중국 상하이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 욱

- 사이버 보안 등 25개 분야에 새 일자리 10만 개 창출 2017.06.17
- 뉴욕시는 사이버 보안, 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계획을 발표함. 25개 분야에 연봉 5만 달러(5,6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기대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17-17/transcript-mayor-de-blasio-mayor-de-blasio-comprehensive-set-strategies-spur-the>
- 독립기념일 연휴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 2017.06.17
- 뉴욕시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해당 기간에 커브 앱(Curb app)으로 택시를 이용하면 10달러(1만 1천 원)를 할인해주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50-17/vision-zero-mayor-de-blasio-actions-combat-drunk-driving-holiday-weekend#/0>

런 던

- 저탄소·친환경 제품 생산 100개 中企 지원 2017.06.12
- 런던시는 스마트 시티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우선 160만 파운드(23억 6,500만 원)를 지원하여 친환경기술 인큐베이터 구축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100개의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reveals-his-smart-city-ambition-for-london>
- 2050년까지 시 전역 탄소배출 제로화 추진 2017.06.21
- 런던시는 2050년까지 런던시 전역의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는 교통계획을 발표함. 버스, 트램(tram), 지하철 연결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fairer-greener-healthier-more-prosperous-city>

- 공공공간 개선 등 지역사회 재생 프로그램 발표 2017.06.29
- 런던시는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을 발표함. 7,000만 파운드 (1,034억 원)를 투입해 시민에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공간을 개선하며, 지역 산업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announces-70m-fund-to-support-regeneration>

상 하 이

- 은행·영화관 등과 제휴로 고령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2017.06.14
- 상하이시는 '상하이 고령자 카드 연합회'를 설립하여 고령자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 관광명소, 은행, 영화관 등과 제휴를 맺음. 향후 의료기관, 문화시설, 식당 등과도 제휴를 맺어 고령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6519.html>
- 외국인 관광객에게 144시간 비자 면제 2017.06.21
- 상하이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44시간 비자를 면제하기로 함. 2016년 1월 30일 시행된 72시간 비자 면제를 확대하여, 이번에는 시간을 늘리고 53개국 시민이 비자 없이 난징(南京), 저장(浙江), 항저우(杭州) 등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6597.html>

싱 가 포 르

- 공공기관 전기·물 소비량 줄여 탄소배출량 감축 2017.06.06
-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전기·물 소비량을 줄이기로 함. 공공기관의 설정 온도를 높이고, 친환경 전자제품 이용과 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연간 6,250만 달러(705억 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함.
<https://www.gov.sg/news/content/the-straits-times---public-sector-to-lead-green-push-by-cutting-electricity-water-use>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